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1(1) 나는 오늘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나는 오늘」에서는 작품의 특징,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작품에 나타난 표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꼭 차 있었다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나는 오늘 구름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사각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오늘 그림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공기
네 옆을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네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 오은, 「나는 오늘」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각사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변화무쌍한 내면 심리를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각 연을 “나는 오늘”로 시작하여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시의 처음과 끝에 ‘토마토’를 배치하여 구조적 완결성과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거꾸로 읽어도 같은 단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상태를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표면적 의미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의 전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사물의 속성과 연결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윗글을 쓰기 위해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서사적인 구성을 취해 보자.
- ②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가 바라는 바를 강조해 보자.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해 보자.
- ④ 색채어의 선명한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해 보자.
- ⑤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부각해 보자.

4.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9연에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1연부터 7연까지는 화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8연과 9연에서는 타인에게로 관심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 ③ 각 연마다 비유하는 대상을 바꾸어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다양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의 성장을 지향하는 시이므로, 화자의 나약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화자의 마음을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물들에 빗대어 매일 달라지는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의 순환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③ 격정적인 감정과 차분한 상태를 대비시켜 시적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오늘’이라는 시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사하여 순수함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신유형

「나는 오늘」에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외에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운율 형성 방법을 묻는 문제, 서정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 <보기>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감상 내용을 찾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및 정서 등을 이해하고 맥락상 각각의 시어와 시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6~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꼭 차 있었다

〔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
[A]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나는 오늘 구름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사각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 나는 오늘 그림자
 [B]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 잘못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공기
 네 옆을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네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 오은, 「나는 오늘」

6.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위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곧게 자라나려는 ‘나’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내면의 고뇌와 아픔을 딛고 성숙해가는 ‘나’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사방으로 뻗어 나가며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쏟아지는 햇빛과 거센 바람이라는 시련 속에서 성장이 지체된 ‘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나무의 물관이 차오르듯 내면이 팍 찬 상태로 성숙해진 ‘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7. 이 시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상태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슬픔의 정서를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시구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눈물, 얼룩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8. 이 시의 [B]에 드러난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을 성찰하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끊임없이 생각에 잠겨 앞으로의 일을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려움을 이겨 내겠다는 끈기를 다짐하고 있다.
- 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희망찬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위 시는 시인이 청소년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쓴 시이다. 시인은 청소년들의 변화무쌍한 심리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물들의 특징을 빌려 오거나, 음운면으로 재미있는 특징을 지닌 일상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변화의 한 순간을 특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가 미세하게 변화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 ① '구름'처럼 모양이 시시각각 변하는 속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종이'의 텅 빈 속성을 활용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표현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채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는 속성을 빌려, 대가 없이 상대를 돕고 싶은 화자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각 연에 '오늘'이라는 시어를 배치하여, 미세하게 변화하는 화자의 마음과 그 순간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 ⑤ '토마토'와 같이 앞뒤가 똑같은 단어를 처음과 끝에 배치하여, 심리가 변하더라도 본질적인 '나'는 변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10. <보기>에서 이 시를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 자연물과 함께 성장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 시적 허용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군.
- ㉢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그리움을 극대화하고 있군.
- ㉣ 대비되는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있군.
- ㉤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 ㉥ 이별의 아픔을 참신한 비유를 통해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군.

- ① 가, 라, 마
- ② 나, 다, 바
- ③ 가, 나, 라, 마
- ④ 가, 다, 라, 바
- ⑤ 가, 다, 마,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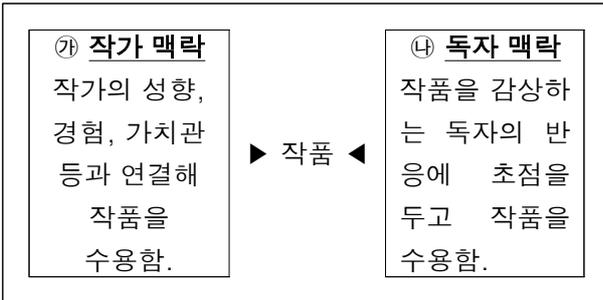
11. ㉠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시 전체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 ㉡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 마치 일기를 쓰듯 서술하여 화자가 내면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 ㉣ 각 연마다 비유하는 대상을 변주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2. ㉠, ㉡를 고려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여 삶을 성찰한 것을 보니, 작가는 일상의 경험과 언어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군.
- ② ㉠: ‘토마토’나 ‘일요일’ 같은 단어의 특징을 활용한 것을 보니, 작가는 언어유희가 주는 재미에 관심이 많군.
- ③ ㉡: 이 시를 읽고 나니 나도 오늘 하루 느꼈던 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었어.
- ④ ㉡: 시에 쓰인 비유와 상징이 작품의 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읽었어.
- ⑤ ㉡: 햇빛과 바람 속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며, 나도 시련을 딛고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

13. 위 시에서 각각의 시적 대상을 통해 표현하는 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마토’는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나’의 본질적 자아를 나타낸다.
- ② ‘구름’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화자의 우울하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다.
- ③ ‘종이’는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 ④ ‘일요일’은 휴일이 주는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나타낸다.
- ⑤ ‘공기’는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14.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일 다른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 ② 나도 가끔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화자도 그런 마음을 느꼈다니 공감이 돼.
- ③ 난생처음 보는 낯설고 어려운 시어들을 사용하여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군.
- ④ 내 마음인데도 나조차 몰랐던 감정들을 이 시를 통해 발견하게 된 기분이야.
- 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화자의 모습이 내 경험과 겹쳐서 설렘어.

15. 윗글을 읽고 난 후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무’가 햇빛과 바람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니, 화자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유리’에 금이 가고 얼룩이 생겼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느껴져.
- ③ ‘종이’가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보니, 화자가 느끼는 마음의 빈자리가 큰 것 같아.
- ④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
- ⑤ ‘공기’가 되어 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다는 것을 보니, 화자는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해 보답 받기를 원하고 있어.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토마토’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로, 이래도 저래도 변함없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이를 통해 변하는 마음 상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 ① 5연의 ‘사각사각’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텅 빈 종이에 무언가를 쓰는 듯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준다.
- ② 토마토, 나무, 유리, 구름 등 여러 가지 사물에 화자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매 연의 머리에 ‘나는 오늘’이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통일감을 준다.
- ④ 1연과 9연에 ‘토마토’를 반복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정답 ⑤

이 시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토마토, 나무, 유리 등 구체적인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독자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각 연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 변화가 시상 전개에 주된 방식은 아니다.
- ②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 ④ 공감각적 심상(감각의 전이)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정답 ③

‘나는 오늘 (대상)’이라는 문장 구조를 각 연마다 반복하여 운율(리듬감)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주고 있다.

- ① 서사적인 구성보다는 각 대상에 대한 단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설의법이나 의문형 어미는 주된 표현 방식이 아니다.
- ④ 마지막 연에 ‘붉게’라는 색채어가 쓰였으나, 색채어의 대비가 시 전체의 특징은 아니다.
- ⑤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4. 정답 ④

이 시에는 ‘금이 간 채로 울었다’, ‘텅 빈 상태’,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등 화자의 상처, 공허함, 후회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모습도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 ①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 ② 시의 후반부에서 ‘너’(타인)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거나, ‘너’ 앞에서 붉게 물드는 등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 ③ 병렬적 구성을 통해 하루하루 다른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⑤ 은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 사물과 연결하고 있다.

5. 정답 ①

‘속이 짝 찢’ 토마토, ‘잘 깨지는’ 유리, ‘모양이 변하는’ 구름 등 사물의 속성을 화자의 마음 상태와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의 순환에 따른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감정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구조는 아니다.
- ④ ‘오늘’은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이며, 미래의 불안 해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 ⑤ 감각의 전이(공감각적 심상)는 사용되지 않았다.

6. 정답 ③

㉠에서 화자는 ‘햇빛’을 받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위로 옆으로 /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① 가지치기와 같은 인위적인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자기 고뇌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햇빛과 바람은 화자의 성장을 돕는 자연물이며, 시련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 ⑤ 1연의 ‘토마토’에서 ‘짝 차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2연의 ‘나무’는 사방으로 자라는 성장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7. 정답 ②

[A]에서는 ‘금이 간 채로 울었다’, ‘눈물이 고였다’, ‘얼룩이 생겼다’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슬픔과 상처를 표현하고 있으나,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① ‘나는 오늘 유리’라는 표현을 통해 은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거짓말처럼’과 ‘진짜 같은’이라는 대립적 시구를 사용하여 화자의 복합적인 심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금’, ‘눈물’, ‘얼룩’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낸다.
- ⑤ ‘거짓말처럼’, ‘진짜 같은’과 같이 직유법을 활용하여 슬픔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8. 정답 ②

[B]에서 화자는 ‘그림자’가 되어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으며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는 성찰적 태도와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 ① 반성적 태도는 보이나, 자기 연민이나 비관적 태도가 주된 정서는 아니다.
- ③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은 맞지만,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표현한 것은 5연의 ‘종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 ④ 끈기를 다짐하는 의지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9. 정답 ①

4연에서 ‘구름’은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고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있는 상태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② 5연의 ‘종이’는 ‘텅 빈 상태’로 막막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위로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 ③ 8연의 ‘공기’는 ‘아무도 모르게’ 곁을 맴돌며 너를 살게 하고 싶은 헌신적인 마음을 나타낸다.

④ ‘오늘’이라는 시어는 매 순간 달라지는 마음의 상태를 포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⑤ 1연과 9연의 ‘토마토’는 변주되지만 결국 동일한 ‘나’임을 보여준다.

10. 정답 ①

㉠: 2연에서 나무가 되어 햇빛, 바람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3연에서 ‘거짓말’과 ‘진짜’라는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 ‘나는 오늘 ~’이라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 시적 허용은 사용되지 않았다.

㉤: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맞으나, 이별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시는 내면의 성찰을 다루고 있으며, 이별의 아픔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

11. 정답 ⑤

㉠: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통일성과 운율을 형성한다.

㉡: ‘나는 오늘’이라는 반복은 매일의 기록과 같은 느낌을 주며 화자의 성장을 보여준다.

㉢: 대상을 바꾸어가며 변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이 시는 현실 안주가 아닌 내면 성찰과 성장을 다루고 있다.

12. 정답 ④

독자 맥락은 독자의 경험, 가치관,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작품의 비유와 상징이 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작품 자체의 내적 질서에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절대론적 관점)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 작가 맥락은 작가의 성향이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 교과서의 작가 소개 및 인터뷰에서 작가가 일상의 언어와 경험을 중시한다고 언급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 작가 맥락과 관련하여,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토마토’나 ‘일요일’처럼 앞뒤가 똑같은 단어가 주는 재미(언어유희)에 관심이 많음을 밝혔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㉔ 독자 맥락은 독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독자 맥락을 고려한 능동적인 감상에 해당한다.

⑤ ㉔ 독자 맥락에서 독자는 작품을 통해 교훈이나 감동을 얻을 수 있는데, 나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다짐을 하는 것은 독자 맥락을 고려한 적절한 수용이다.

13. 정답 ①

1연의 '토마토'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속성을 통해,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나'의 정체성과 꼭 찬 내면을 의미한다.

② '구름'은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③ '종이'는 텅 빈 공허함과 위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④ '일요일'은 내일(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휴식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⑤ '공기'는 드러나지 않게 상대를 돕고 싶은 헌신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14. 정답 ③

이 시는 '토마토', '나무', '종이'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이고 쉬운 시어들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낯설고 어려운 시어를 사용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소년 시절의 번덕스러운 마음을 다루고 있어, 비슷한 시기의 독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② 화자도 '금이 간 채로 울'거나 '잘못한 일들'을 떠올리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므로 이에 공감할 수 있다.

④ 작가는 시를 통해 독자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⑤ 9연에서 '너' 앞에서 붉게 물드는 모습을 통해 설렘을 느끼는 경험에 공감할 수 있다.

15. 정답 ⑤

'공기'는 '아무도 모르게' 네 옆을 맴돌며 너를 살게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① 2연의 '나무'는 햇빛과 바람 속에서 사방으로 자라나는 성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3연의 '유리'는 금이 가고 얼룩이 생긴 속성을 통해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드러낸다.

③ 5연의 '종이'는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으며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공허함을 나타낸다.

④ 7연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16. 정답 ③

5연의 '종이'는 '텅 빈 상태'로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막막함과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한 공허함,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① 2연의 '나무'는 햇빛과 바람 속에서 사방으로 자라나는 성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4연의 '구름'은 시시각각 표정이 변하고 기분에 취해 떠다니는, 감정 변화가 잦은 화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④ 7연의 '그림자'는 화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자아 성찰과 후회의 매개체이다.

⑤ 9연의 '토마토'는 '너' 앞에서 붉게 물드는 모습을 통해 설렘과 부끄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17. 정답 ①

이 시는 '오늘' 하루 동안 변화하는 화자의 마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② '토마토', '유리', '종이' 등 일상적인 소재와 언어를 사용했다.

③ '붉게 물들고'와 같은 색채어를 통해 설레는 감정을 표현했다.

④ 은유법을 사용하여 마음을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⑤ '사각사각'(청각), '얼룩'(시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18. 정답 ①

2연에서 화자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위로 옆으로 / 사방으로 자라고 있'다고 했다. 이는 바람을 성장